

동구, 도심문화축제 ‘충장 라온페스타’ 개최

4월~11월 매달 마지막 토요일
상가 소비촉진, 방문유도 목적
‘K-스타챌린지’ 등 볼거리 다채
“충장로서 즐거운 경험, 추억을”

광주광역시 동구가 원도심 상권에 활기를 불어넣고 시민들에게 일상 속 즐거움을 선사할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동구는 오는 26일부터 11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마다 도심형 문화축제 ‘2025 충장 라온페스타’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충장 라온페스타’는 지난 2022년 충장 상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시작된 행사로, 충장로와 지하상가 일대의 소비를 촉진하고 방문객을 유도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라온(즐거운)’이라는 이름처럼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오는 11월까지 충장로 일대에서 펼

쳐질 예정이다. 올해 행사에서는 ‘라온하게 충장이 ON다!’를 주제로 ‘상설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상설 프로그램으로는 K-POP 경연대회인 ‘충장 K-스타 챌린지’와 지하상가가 문화공간으로 변신하는 ‘지하상가 문화의 날’이 매달 마지막 토요일 진행된다. 이밖에도 무료 공예체험과 경품 이벤트, 플리마켓, 버스킹 공연 등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상시 운영된다.

6월부터는 본격적인 메인 프로그램도 시작돼 즐길거리가 보다 다채로워질 전망이다. 개막행사는 오는 6월13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충장로 1가 일대에서 열리며, DJ 공연과 미션 어드벤처, 코스튬 카니발 등이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여름철 이색 행사도 눈에 띈다. 8월에는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설정으로 인공 눈과 비눗방울 등 한여름에 겨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충장 상인과 청년 창업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충장 4·5 도깨비장터·충장 놀장(場)’도 오는 6월과 10월 두 차례 열린다.

상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해당 프로그램은 상권 활성화를 향한 염원을 담은 행사로 기대를 모은다.

임택 동구청장은 “올해 충장 라온페스타는 1년 내내 충장로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가득하다”면서 “충장로에 방문해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가져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서구, ‘상록별빛학교’ 운영
인문·예술 야간 특강 선보여



광주광역시 서구가 주민들의 일상에 휴식과 영감을 더할 인문·예술 특강을 선보인다.

광주 서구는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험과 교양 함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상록별빛학교’ 야간 특강을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7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열리며, 중년, 일상, 도장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저자들이 강연을 맡아 문화적 여유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첫 강좌에는 ‘명량한 중년, 웃긴데 왜 찡하지?’의 문화연 작가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당신을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한다. 문작가는 나이에 대한 진솔한 성찰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공감과 동기를 전할 계획이다.

이어지는 강연은 다음달 29일 열리는 조승원 작가의 ‘예술가가 사랑한 술 이야기’와 오는 6월26일 윤광준 사진작가의 ‘일상을 아름답게 채우는 힘’, 오는 7월24일 신경식 도장 예술가의 ‘전각의 아름다움과 이해’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강좌 참여 신청은 매월 1일 서구 통합도서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서구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미 서구 도서관과장은 “상록별빛학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민들이 인문·예술 강연을 통해 삶의 여유를 찾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심과 회복의 프로그램”이라며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남구, 교복나눔 장터 연다
26일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광주광역시 남구가 교복나눔 장터를 개최한다.

남구는 오는 26일 오전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교복나눔 장터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복 물려주기 문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한번도 착용하지 않은 새 교복을 포함해 재킷과 셔츠, 치마, 바지, 조끼까지 총 1500여점에 달하는 상품을 나눔장터 방문객들에게 제공한다.

남구 관계자는 “교복 구매 비용이 가계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어서 교복 나눔장터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준 기자



광주 남구가 26일 주월동 푸른길 공원에서 교복 나눔 장터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교복 나눔 장터의 모습.

남구청 제공

우산동 뉴빌리지 조성 공청회
광산구, 30일 행정복지센터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오는 30일 오후 2시 우산동 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우산동 ‘뉴빌리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고 2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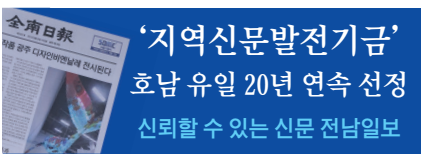
공청회에서는 우산동 ‘뉴빌리지’ 사업 시행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관계 전문가 등과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광산구는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 도시재생 전문가, 관계단체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실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주민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게 사업을 계획하고, 세부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구는 지난해 광주에서 유일하게 국토교통부의 뉴빌리지 사업 공모에 선정돼 민선 8기 단일 사업으로 최대 규모인 9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김상철 기자



북구, 무등산 평두메습지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광주 최초 랍사르습지 등록
주민 대상 환경 교육 활성화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 등
서식 생물 탐사 기록 결과 공유

광주광역시 북구가 무등산 평두메습지 생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광주 북구는 지난해 광주 최초로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평두메습지의 생태 탐방 기회를 제공, 습지의 소중함과 보전 가치를 알리기 위해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를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어린이 랍사르습지 탐사대’는 북구가 사전에 모집한 지역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의 6~7세 유아를 대상으로 총 280여명의 어린이가 탐사대 활동에 참여할 예정이다.

오는 5월13일까지 ‘습지 생물 둘러보기’, ‘생물 소리 들어보기’, ‘나만의 평두메습지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환경에 관심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과 5월28일 두 차례 ‘평두메습지 시민과학 생태학교’도 운영된다.

이 사업은 참여자에게 평두메습지에



지난해 3월20일 ‘람사르습지 등록 기원 탐사대’에 참여한 아이들이 광주 북구 평두메습지에서 올챙이와 개구리를 찾아보며 즐거워하고 있다.

뉴스

서식 중인 생물을 탐사 및 기록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경험을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방향을 논의해 환경보전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탐사 활동은 습지 생물을 식물, 양서류·파충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세 분류군으로 나눠 대학교수,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가가 동행해 진행된다.

북구는 6월에 진행될 2회차 생태학교 운영 시 지역의 초·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환경 교사를 참여자로 모집해 평두메습지 탐사 경험을 학교 교육 현장으로 확산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태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참여자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내년도 사업 추진 시 반영 및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주민 참여 생태 프로그램을 통해 생태계의 보고이자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산인 평두메습지의 생물학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두메습지의 생태 환경을 보전해 주민들이 자연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우 기자